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순원 소설가

새해 아침 많은 신문에 각 신문사마다 실 시한 신춘문에 당선작과 당선자의 얼굴이 나왔다. 신춘문을 실시하는 신문도 있고, 하지 않는 신문도 있지만 어떤 신문이든 지난 일 년간 기사를 통틀어 신춘문에 당선작 만큼 여러 지면을 한 사람의 얘기로 채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소설 당선작의 경우 오직 한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적게는 두 지면을, 많게는 세 지면을 가득 채운다.

올해에도 몇 군데 신문의 신춘문에 실사를 보였다. 문학처럼 그 시대를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는 것도 드물다고 한다. 그것은 내용에서도 그렇고, 형식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최근 심사를 하며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른

새해는 우리 모두 안녕해질까?

느낌 하나를 더 받았다.

내용과 형식뿐 아니라 동계에서도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신춘문에 응모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문학의 위상이 높아져서 응모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갈수록 책을 읽는 사람은, 더구나 시와 소설을 읽는 사람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신춘문의 응모자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뭔가 할 얘기가 많은 시대라는 것은 분명하다. 꽤 오래 전 IMF가 처음 시작되던 해에도 신춘문에 응모자가 그 전해에 비해 급격하게 늘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패선업계에서 여자들이 입는 치마길이가 길어지면 호경이고, 짧아지면 불경기로 진 단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해그해 신춘문에 응모자 수가 말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경기 지표인지도 모른다. 시대가 어수선했수록, 삶이 짙아질수록, 그리고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신춘문에 응모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은 틀림없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글을 쓰고 싶게 하

는가. 갑자기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해져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면 한 나라의 문화로서도, 문학으로서도 다행한 일이겠지만 그것의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마다 일터에서 저마다의 일을 잡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느 날 일자리를 놓게 되거나, 젊은이들 경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회가 박탈되었을 때 시대에 대해서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자신의 많은 얘기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문학적 감수성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박탈감이 무슨 말이든 하고 싶게 만든다.

또 한 가정의 가장이 그런 공지에 풀렸을 때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족 중에 자신이라도 나서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모른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에 대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읽은 어느 고등학생 응모자의 작품은 소설이러기보다 왜 자신이 신춘문에 응모하는가에 대해서 쓴 수기 같은 글이었다.

어느 날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하루 몇 시간씩 저임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소녀는 자신의 글 속에 여러 차례 신춘문에 상급 얘기를 했다. 또 중간 중간, 이렇게

쓰면 상급이 날아가버리고 말 텐데 하는 불안을 내비치며 사실은 문학에 대해서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은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사이도 없이 글부터 쓰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당선과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삶의 이야기로는 그보다 더 절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소녀만 절박한 게 아니다. 지난 해 말부터 서로 묻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안부가 바로 '안녕을 하십니까?'이다. 묻는 말의 형식이야 타인에 대한 안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불안한 사회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다.

당장의 내 삶이 어찌와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정말 안녕한 것일까. 한 대학생이 대자보를 통해 던진 질문에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있음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새해가 밝아오자 저 질문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사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 누군가 대답해야 하는데,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 묻는 질문의 입만 막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상급이 사라지고 있다. 아직 대가자의 20%도 이식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의료칼럼

장기기증, 가장 아름다운 기부



박진우 보리안과병원 원장

현재 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정서는 '뜻깊은 일이지만 내가 나서서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KONUS(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조사한 장기기증의향이 없는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5.6%가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 꺼려져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기증에 대한 정서는 유교문화가 뿌리깊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남다르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배운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뼉속까지 각인된 탓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성형수술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장기기증의 수가 OECD 최저수준인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물론 예로부터 죽은 자에게 다시 죄를 물었던 '부관참시(剖棺斬屍)'처럼 신체 훼손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그리고 사후 몸을 이용해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일종의 뿌리 깊은 믿음을 비롯한 장묘문화 등도

기증자가 적은 원인일 것이다. 21세기 달 착륙은 기본, 날아오는 혜성에 위성을 쏘아 착륙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임에도 아직 완벽한 인공장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장기이식을 위해 복제간이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남아있다. 따라서 장기기증은 꼭 필요한 현실이고, 기증대기자의 10% 정도만 장기이식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안과 레이저던 시절 저녁에 KONUS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당직의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현재는 각막보존제 등이 잘 개발돼 응급수술 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1990년대에는 일단 기증자가 생기면 안구를 가져오는 순간부터 기증받을 환자의 수술까지가 모두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므로 그날 받은 한숨도 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각막이식을 받았던 환자 중 기억나는 여고생이 있다. 어려서 한눈을 다쳐 각막손상을 입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분의 각막을

이식받았다. 수술 전 여고생은 머리카락으로 그쪽 눈을 가리고 다녔는데 수술 후 예쁜 얼굴로 웃으면서 병원을 찾았고, 인자해 보이는 어머니는 이름도 모르는 기증자의 명복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로는 세계 최정상급이다. 특히 안과분야는 굴절수술, 백내장수술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각막 이식분야는 이식을 위한 각막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아직 대가자의 20%도 이식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기증의사가 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의외로 30%가 기증방법을 몰라서라고 하는데, www.konus.go.kr을 통해 쉽게 사명을 실천할 수 있다. 공익광고에도 나오듯이 기증을 했다고 해서 불의의 사고사 바로 장기기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안심해도 된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하면 건강해진다고, 내가 건강해지면 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진다고 나는 믿고 있다.

社說

光銀 인수 JB금융 지역민 여망 직시해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에 전북의 JB금융과 부산의 BS 금융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금융은 이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세부 협상을 거쳐 오는 7월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새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과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을 염원했던 시도민의 차가운 반응, 매각에 따른 세금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인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31일 설명을 내고 "JB금융이 밝힌 광주은행 운영안은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지역 환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진 속인 강경"이라며 "지역민과 함께 광주은행 인수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해 광주은행 인수를 주도했던 광주상공회의소 측은 "JB금융이 광주은행보다 규모가 적고,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하다"며 "광주은행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중소특례제한함이 표류하게 되면 매각에 따른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유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B금융은 이를 의식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두 뱅크 체제 유지, 100% 고용 승계 등을 밝혔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다.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자본 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속된 강경'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민들은 JB금융이 지역을 외면한 채 수도권에 일관할 경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등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JB금융은 이러한 지역민의 우려와 여망을 직시해 광주은행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만일 기대에 부응치 못한다면 광주시·전남도 금고 및 지역민의 예금 해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수감찬 용의자 도주, 경찰은 대체 뭘 했나

한평의 한 파출소에서 수감이 채워진 절도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잡혀갔다. 피의자가 도망칠 당시에는 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직자들은 두 눈을 뻔히 뜨고도 범죄 혐의자를 놓치는 바람에 또다시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31일 0시 30분경 함평읍 읍내파출소에서 최근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다가 붙잡힌 김모(27)씨가 수감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김씨는 손을 뒤로 한 채 수감을 차고 있던 상태로 도주했으며, 조사 대기 의자에 채워진 한쪽 수감과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손이 아프니 수감을 좀 느슨하게 해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받고, 한쪽 수감이 털 조이도록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1명은 컴퓨터로 범죄정보시스템에 입력 작업을 하고, 다른 1명은 옆에 앉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틈에 김씨는 수감에서 손을 빼 파

출소 문을 당겨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부랴부랴 함평읍내를 이 잡듯이 뒤졌고, 37시간 만에 주인의 제보로 목욕탕에 숨어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하마터면 도주사건이 장기화돼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추가 범죄 발생이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킨 했지만 근무 태만의 질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파출소 문은 나갈 때 직원의 작동으로 움직이도록 돼있으나 열린 상태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숨겨놓은 상부에는 7시간 후에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공조 체제마저 지연시켰다.

한평을 비롯한 지난해 전국에서 범죄자가 수감을 차거나 수감에서 손을 빼 달아난 사건은 8건에 달한다. 이는 경찰이 형사사건의 기본업무인 용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은 도주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수칙 준수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고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김남호 신용보증기금 광산지점장

숨을 건 생존경쟁, 끝없는 이념갈등에 따른 정신적인 피로감...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유연하지 못한 고용시장도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들어간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평생직장이 크나큰 미덕이며, 자주 직장을 옮기는 것이 신중치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우리의 의식개념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유난히도 경직되어 있어 사람의 들고나감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 번 퇴사하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고용시장이다 보니 퇴사나 구조조정 심적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중소기업 사장들이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박4일 동안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고용노동센터 앞에서 노숙(露宿)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왜 우리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땀의 가치'와 '기술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청년실업 백만시대에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까닭이다. 결국 언론이나 사회 저명인사,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위정자들 모두가 말하지만 청년실업 해결책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일자리라는 널려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보다 고용시장이 유연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기술과 경험을 두루 쌓은 후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시 재취업의 시장에 뛰어든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고용시장 구조 또한 사람의 들고나감이 자유롭고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의 제도적인 변화정착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나 법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20~30대의 빛나는 청춘을 쪽방 고시원이나 공시족이 되어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 10시간 넘게 책과 씨름하며 공공넷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가 없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무공무진한 미래가 잠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야 할 시기인 것이다.

때마침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의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정책에 기여하고 우수 중소기업

및 청년층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구인구직사이트인 '잡클라우드'(www.kodit.co.kr)를 오픈했다.

잡클라우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엄선한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기업(Value Star 기업)과 대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의 구인·구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제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보 본점을 포함해 광주(조선대), 대전(한밭대), 부산(동대) 등에서 열린 취업오디션에서는 업종 및 직무가 유사한 3~5개 회사와 여러 명의 지원자가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는 다(多)대 다(多)면접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어느 취업면접장보다도 뜨거운 현장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 2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기업회원료 가입하는 등 우수인재를 채용하려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취적이고 개성 강한 다양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탐과 노동의 참된가치를 느끼며 선순환구조의 인력 및 고용시장을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창조경제의 첫발을 우리 경제의 중추, 중소기업에서 함께 내디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은행 대출받으러 갔더니 적금 강요 "불쾌해"

얼마 전 딸아이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는데 적금 강요 때문에 불쾌했다. 집 문제 때문에 약간의 대출이 필요해서 창구에 갔더니 담당 은행원은 딸을 쳐다보면서 아이를 위해 적금 하나 들 것을 권유했다.

그 은행원은 적금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설명한 뒤 "요즘 이직 때문에 너무 힘들다. 위에서 의무적으로 강요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여윌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이미 적금 든 것이 있어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막 무가내었다. 하물며 돈이 궁해서 대출을 받으려 온 고객에게 적금을 강요하는 것 자체

가 무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그 직원은 일단 적금을 들고 나중에 해약해도 된다며 계속 얘기했다.

슬슬 난처해지고 옆에 있는 딸 아이 보기가 민망해지기 시작했다. 적금을 들으려고 말하는 은행원 앞에서 내가 적금 들 돈이 없다고 말하는게 딸 아이가 보기에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적금 하나도 가입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집은 그 정도로 가난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나 낮이 뜨거웠다.

예전에는 은행 가면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그토록 강요하더니 이제는 적금 들으라는 얘기도 하는구나 생각했다. 적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다 사정이 있으니 굳이 난처하게 강요하는 일은 좀 삼가했으면 한다.

▲김영심·광주시 북구 운암동

無 等 鼓

한평을 비롯한 지난해 전국에서 범죄자가 수감을 차거나 수감에서 손을 빼 달아난 사건은 8건에 달한다. 이는 경찰이 형사사건의 기본업무인 용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은 도주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수칙 준수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민동락(與民同樂)

한편 들어간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평생직장이 크나큰 미덕이며, 자주 직장을 옮기는 것이 신중치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우리의 의식개념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유난히도 경직되어 있어 사람의 들고나감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 번 퇴사하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고용시장이다 보니 퇴사나 구조조정 심적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small>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small>			
<small>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small>		<small>광고문의 062-227-9600</small>	
<small>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small>	<small>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 론 대 담 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small>	<small>경 영 지 원 국 2200-515 < F A X 222-8005 > < F A X 2200-0195 > 광 고 미 케 팅 부 222-9600 < 독 자 서 비 스 부 2200-551 >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디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small>	<small>2200-541 < F A X 222-8005 > < F A X 2200-0195 >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02-773-9331 1부 500원</small>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